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더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비트코인 거래 시기? 점성술에 물어봐
  - ◇ (분석)-美 국채 수익률 상승에 신중해진 달러 약세론자들
  - ◇ (초점)-CD 발행·변동성 확대 전망에 흔들리는 IRS 시장
  - ◇ (초점)-1100 원대 노크하는 환율, 연초 해외주식 투자 열풍 때문?

.....  
 발행: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의회 의사당 등 주요 건물에 대한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요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로이더/조슈아 로버츠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1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099.4	-0.9%	-1.2%	+6.5%	유로	1.2078	-1.1%	-1.1%	+8.9%
100엔 대비	1,061.9	-1.0%	-1.0%	+1.1%	엔	103.87	0.1%	-0.6%	+5.2%
유로 대비	1,332.5	0.2%	-0.5%	-2.3%	위안	6.4760	0.0%	0.8%	+6.7%
위안 대비	170.21	-0.8%	-2.3%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0,814.26	-0.9%	0.7%	+7.2%
코스피	3,085.90	-2.1%	7.4%	+30.8%	나스닥	12,998.50	-1.5%	0.9%	+43.6%
코스닥	964.44	-2.4%	-0.4%	+44.6%	S&P500	3,768.25	-1.5%	0.3%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96.88	0.2%	5.2%	+19.8%
국고채 3Y	0.973%	-0.5bp	-0.3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314%	-1.2bp	-2.1bp	-14.5bp	미국채 2Y	0.135%	-0.2bp	1.4bp	-144.0bp
국고채10Y	1.731%	0.2bp	1.8bp	+3.0bp	미국채 10Y	1.087%	-3.2bp	17.5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52.36	0.2%	7.9%	-20.5%	한국 5Y	26.1bp	3.0bp	4.2bp	+0.1bp
금(현물)	1,826.59	-1.2%	-3.7%	+25.0%	일본 5Y	15.0bp	-0.1bp	0.0bp	-4.5bp
TR상품지수	2,808.55	2.3%	4.8%	+7.8%	중국 5Y	32.1bp	3.5bp	4.0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월 18일(월)>

- 한은, 2020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4:00)
- 기재부, 부동산 시장 관련 합동브리핑(15:00)

### <19일(화)>

- 기재부,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 KDI, '바이든 시대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12:00)

### <20일(수)>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1차관 브리핑(13:30)
- 기재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13:30)

### <21일(목)>

- 한은, 2020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관세청, 1월 1-20일 수출입동향
- 한은,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BOK 경제연구)(12:00)
- 기재부·환경부·산업부,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개편(14:00)

### <22일(금)>

- 특이일정 없음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월 18일(월)>

- 일본, 1월 로이더단칸 제조업지수 (08:00)
- 중국, 12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도시지역 실업률 (11:00)
- 중국, 4분기 GDP (11:00)
- 일본, 11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휴장

### <19일(화)>

- 유로존, 11월 경상수지 (18:00)

### <20일(수)>

-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21일)
- 중국, 1월 대출우대금리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 캐나다, 캐나다은행 금리발표(자정)

### <2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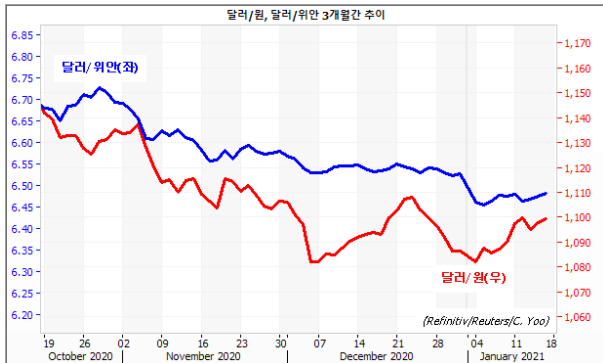
- 일본, 12월 수출입 (08:50)
- 일본, BOJ 금리발표
- 미국, 1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18:00)
- 유로존, ECB 금리발표 (21:45)
- 미국, 12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22일(금)>

- 유로존, 1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1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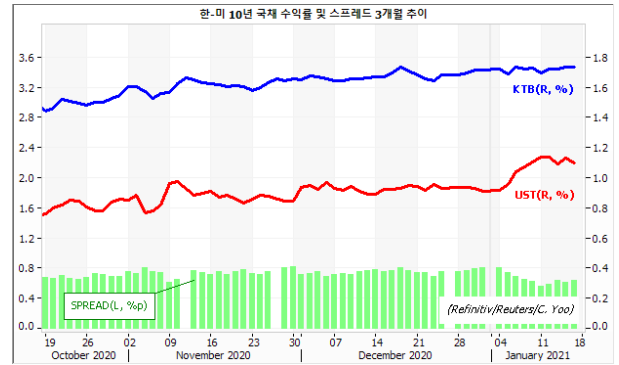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달러 흐름 따라 하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상승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090-1110 원이다.
-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촉발한 약달러 조정 장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연준의 정책 스탠스 변화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시장 진화에 적극 나섰지만, 약달러 모멘텀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지수는 약 0.6% 상승 마감했다.
- 약달러를 이끌 재료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인식 속에서 그간 깊었던 달러 약세 포지션에 대한 경계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데 2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이미 발표된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반응은 예상되지 않는다.
- 미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따른 약달러 기대가 본격 훼손됐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단기 달러 행보에 대한 시장의 저울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달러/원도 함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이번 주 주목할 대외 지표 및 일정으로는 중국 4분기 GDP(18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청문회(19일), BOJ 및 ECB 통화정책 회의(21일) 등이 있다.
- 국내 주요 일정으로는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19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0일) 등이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국채금리와 국내외 주식시장 움직임에 연동하며 제한적인 레인지에서 등락을 이어갈 전망이다.
- 연초 주요 자산가격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의 랠리 이후 차익 실현과 맞물리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주 1조 9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는데도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일부에선 시장이 이미 부양책 재료를 다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금리 상승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일 수 있다.
- 하지만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20일 이후에 또 한 번 시장의 초점이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뒀야 할 듯하다.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한번 '기대 장세'가 재개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현시점에선 주식시장의 조정 여부가 채권금리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도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주식과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이동과 버블 논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주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은행은 오는 21일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로 10월 수준을 유지했다.
- 21일에는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초점)-비트코인 거래 시기? 점성술에 물어봐**

런던 (로이터) -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심해 일부는 비트코인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수정 구슬에 물어보거나 별을 보고 예측하는게 낫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렌 알트만, 비트코인 투자자, 그리고 점성술사를 검색해봐라.

마렌 알트만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해왔다. 많은 이들이 이 방법을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SNS 팔로워 수는 100 만명 이상이다.

지난주 이 여성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1 월 11 일 가격 조정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유는 토성이 수성을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그날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21% 급락, 지난 12 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가격이 2 배 이상 상승했던 랠리가 중단됐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수성은 비트코인의 가격 데이터를 나타내며 토성은 제한 지표다.

많은 이들이 알트만의 분석이 점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듯 하지만, 그는 작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가상화폐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한 젊은 틱톡 인플루언서 중 하나다.

인플루언서들은 많은 금융 애널리스트들조차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측불가능한 비트코인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전통적인 자산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가상화폐에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외환 거래기관인 OANDA 의 크레그 에를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예측과 관련해서는 다소 냉소적이다"며 "이들은 그저 낙관적일 수 있다면 어떤 이유든 정당화하려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20 년 초 이후 5 배 이상 폭등했고, 이에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미래에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비트코인 가격이 31 만 8,000 달러, JP 모간체이스앤코는 14 만 6,000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별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알트만은 "나는 이달 말, 그리고 특히 2 월과 3 월 초에 몇몇 좋은 지표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비트코인 점성술 차트 지표는 비트코인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네시스 블록 날짜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그러나 3 월 중순에 접어들면 큰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월 중순 또한 덜 낙관적이다. 5 월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분석)-美 국채 수익률 상승에 신중해진 달러 약세론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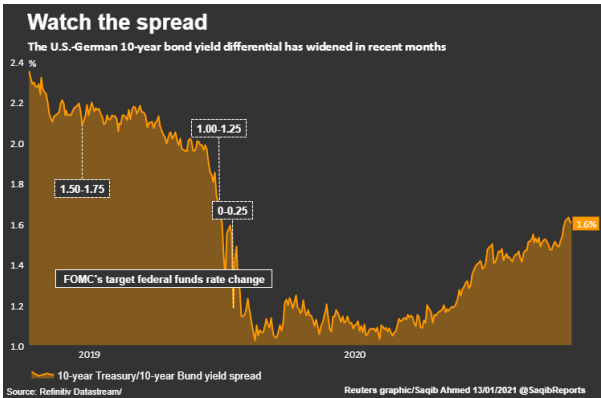
뉴욕/런던 (로이터) -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달러 약세 베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출시와 함께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10 년물 수익률은 3 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고, 달러 가치는 최근 저점에서 1% 이상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유지 전망 등 작년 달러를 수년래 최저치까지 끌어내렸던 대부분의 요인들은 아직 그대로이며, 많은 이들은 달러 랠리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계속해서 달러를 매력적인 자산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일부 투자자들은 달러 추가 약세 베팅을 중단했다. 뉴버거버먼의 타노스 바르다스 글로벌 투자 등급 채권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작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달러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며 "지금부터 우리는 양방향의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의 10 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는 현재 165bp 로, 지난 7 월의 100bp 보다 더 확대됐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달러 약세론자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쌓아온 달러 숏포지션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달러 반등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달러 강세는 많은 글로벌 통화 및 금과 같은 상품에 대한 베팅 등 작년 달러 가치가 7% 하락하면서 번창했던 거래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작년 25% 상승했던 금의 가치는 올 들어 현재까지 약 2% 하락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후로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추가적인 정치적 불안과 관련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수혜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아운디 파이오니어 애셋 매니지먼트의 파레쉬 우파드하야 외환 전략 디렉터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것이 달러 강세를 과장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느정도까지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레미 스트레치 CIBC G10 환율 전략 헤드는 "우리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달러를 더 지지할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초점)-CD 발행·변동성 확대 전망에 흔들리는 IRS 시장.. '커브 스티프너' 너무 깊었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원화 이자율스왑(IRS) 단기 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다.

은행의 고유동성자산비율(LCR) 악화로 CD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금융위원회의 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CD 지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IRS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캐리를 노리고 구축됐던 커브 스티프너가 워낙 깊어 분위기 반전에 따른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14일 IRS 금리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날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강비드가 나오며 시장이 흔들린 데 이어 이날은 역외 기관들도 비드를 내놓으며 금리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장에선 향후 CD 발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IRS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들이 LCR 개선을 위해 CD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고시해 CD 지표물 발행 확대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바뀐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예대율을 산정할 때 양도성예금증서(CD) 지표물의 경우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 인정해 적용된다. 14일부터 은행들이 발행하는 CD의 경우 2월부터 산정하는 예대율에 이같은 조건으로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전 제도 아래서는 예대율 산정을 위해 예수금을 계산할 때 CD 지표물과 기타물을 모두 100%로 반영했는데 그 결과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에 유리한 기타물 발행을 지표물보다 선호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부족한 CD 지표물 발행이 CD 금리 산정을 어렵게 했고, 이는 CD 고시금리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은행이 지표물 발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개월 CD 금리가 0.67%로 같은 만기 은행채 금리에 비해 크게 낮은 만큼 향후 CD 지표물 발행이 본격화할 경우 CD 고시금리와 함께 IRS 단기금

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여기에 그동안 IRS 커브 스티프너가 너무 깊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과도하게 커브 스티프너가 구축된 상황에서 CD 발행 확대 기대감이 커지자 일부 기관들이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은지점의 한 이자율딜러는 "그동안 CD 금리가 워낙 안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물 발행이 늘면 고시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다들 IRS 커브 스티프너를 많이 잡았는데 캐리도 좋지만 당장 단기 CD 금리가 올라가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시작 단계라 CD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다 보니 무거운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캐리만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모두가 스티프너만 가지고 있다 보니 반대로 움직이면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IRS 비드를 주도했던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어제 시장이 너무 얇아서 오퍼가 거의 없었다"며 "금리가 1,2bp 오르면 오퍼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IRS 금리가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 만큼 현 수준에서 급격한 IRS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C 시중은행 이자율딜러는 "1X1 년으로 계산하면 2년 IRS 금리가 이미 한 번의 금리인상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레벨 자체로만 보면 단기 IRS 금리가 이미 고정 수준인 만큼 아무리 CD 고시금리가 올라온다 해도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초점)-1100 원대 노크하는 환율, 연초 해외주식 투자 열풍 때문?**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 전환에 최근 달러/원 환율도 덩달아 상승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단기 달러 행보가 원화의 주된 모멘텀이지만, 최근 수급도 적잖이 환율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급증했던 조선사 수주 관련 달러 매물이 환율 급등을 막아서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반대로 달러 수요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달러 반락 때에도 매번 단단한 달러 수요가 채워지면서 환율 하단이 받쳐지면서 환율 저점은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다.

이에 연초만 하더라도 1080 원 하향 시도에 나서던 환율은 현재 1090 원대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는 모양새다.

#### **▲ 원화, 해외투자 열풍 영향권**

최근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약달러 조정과 이에 따른 원화 숏 포지션 언와인딩이 우선 지목되고 있다.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후 투자자들은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롱 포지션을 축소했고 이중 원화에 대한 롱 포지션이 특히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더해 작년부터 뜨거웠던 개인들의 해외투자 관련 수급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올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22 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작년 1월 전체의 순매수 규모인 7 억달러의 3 배를 넘는다. 한편 이달 해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3 억달러 상당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200 억달러에 육박했고, 특히 7 월에는 32 억달러라는 기록적인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해외펀드(공모기준, 해외 100%) 설정 원본은 약 7 천억원 상당 늘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올해 해외주식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 달러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6천억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외인들은 소폭 매도 우위지만, 주식 관련 역송금 수요가 감지되는 등 최근 원화 강세 제한에 따른 환차익 매물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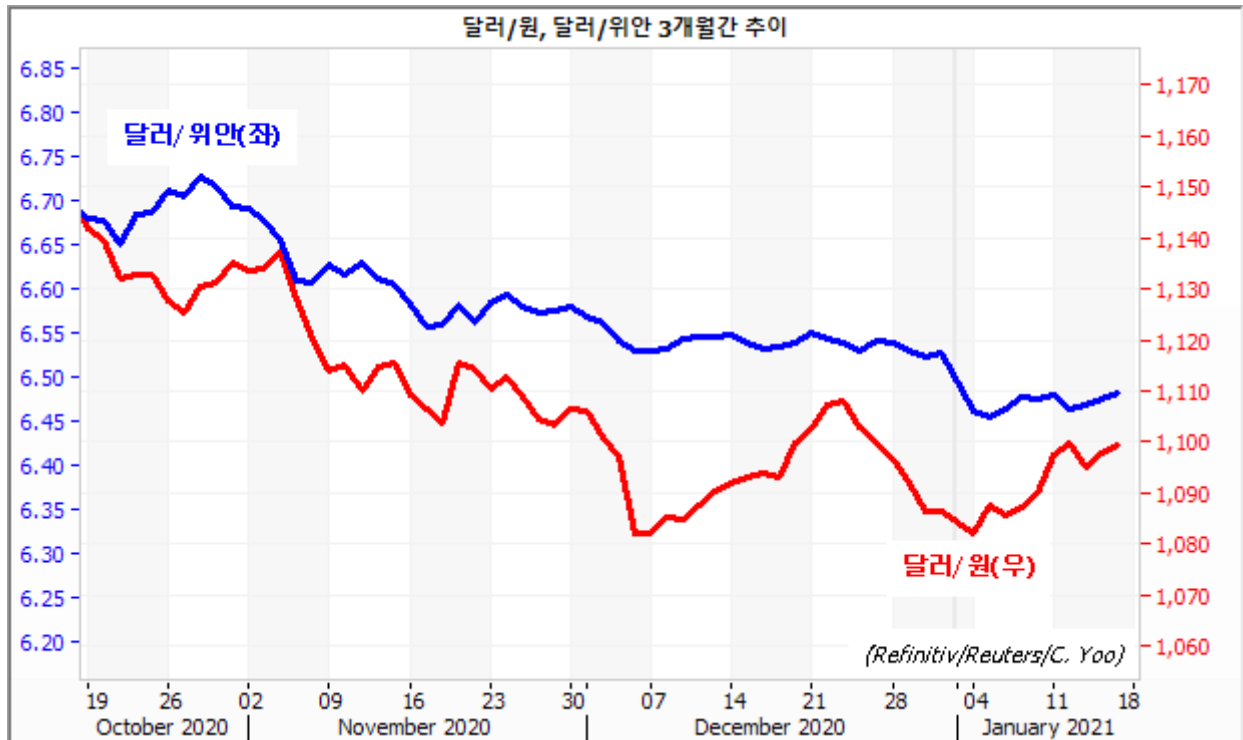
연초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엇나간 달러 전망 속 단기 환율 방향성을 찾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수급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와 관련한 환전 수요에 환율 하단이 단단해지고 있는 듯한데, 경상 부문의 달러 순공급이 약한 계절성까지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관련한 플로우가 당분간 환시 수급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예상했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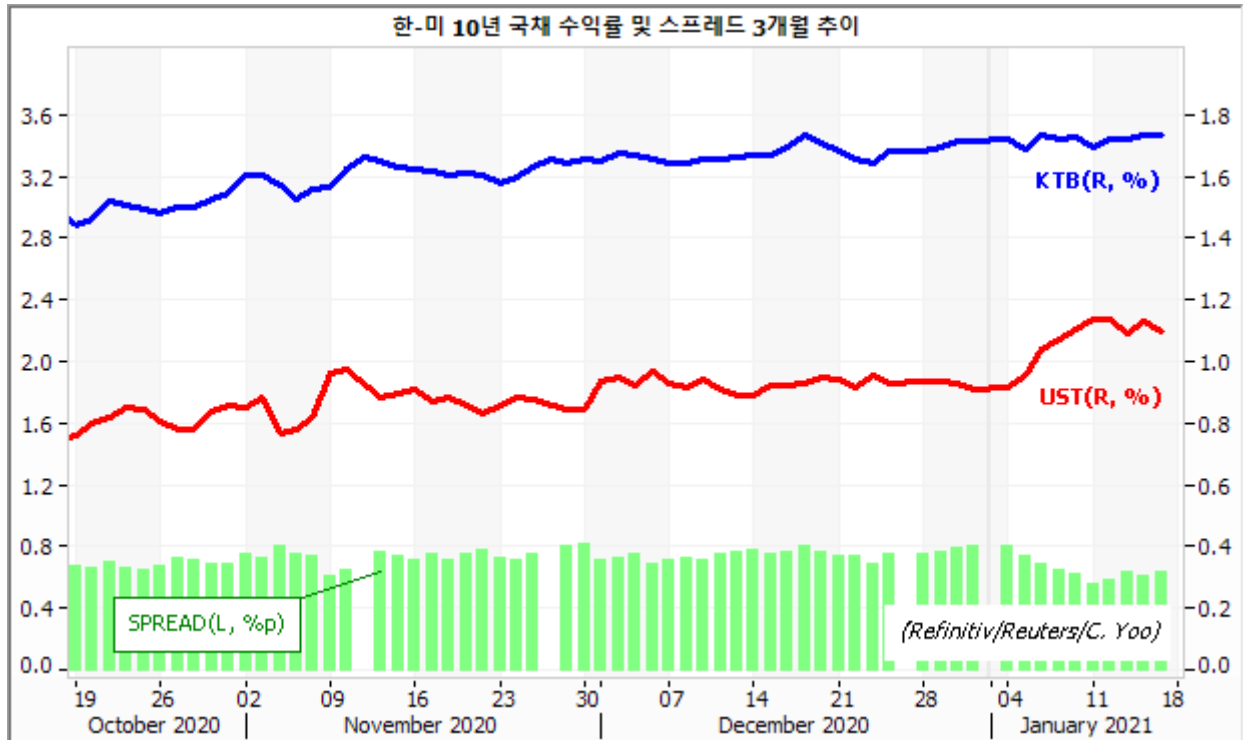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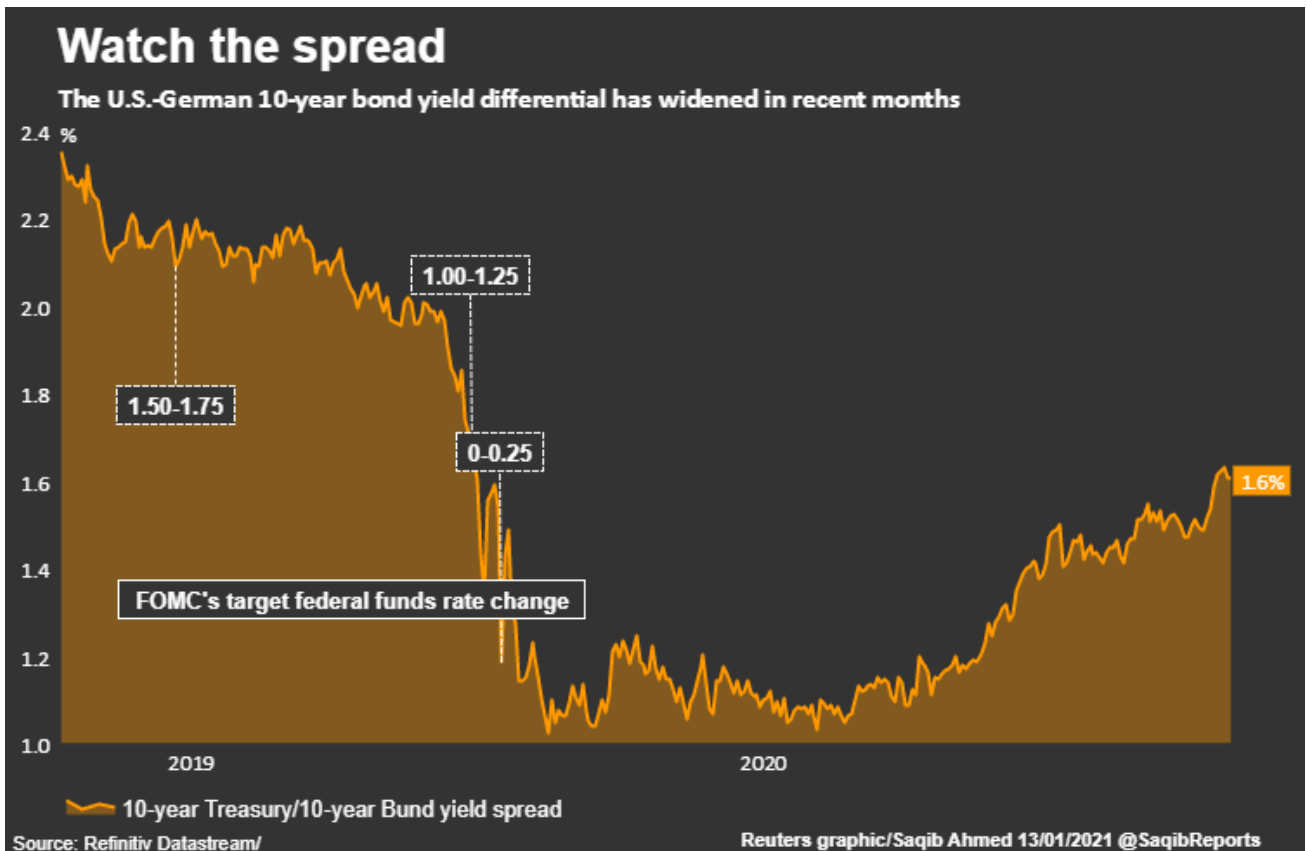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